섬진강 생태관광 조성 순조

2024년 완공 목표

순창군은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을 생태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군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장군목 생태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500만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섬진강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요강바위 등 각종 지리적 자원과 옛 농경문화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장군목 주변을 순창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는 동계면 구미리와 적성면 석산리 1㎞의 구간에 백일홍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다.

11월에는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을 통해 장군목의 장점을 한껏 활용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얻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천산과 더불어 순창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변모를 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7월 착공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인 국내 최장 현수교(270m) 설치가 내년에 완공되면 생태관광지와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 500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치매극복 지역사회 선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
인식 개선 가두캠페인

임실군이 치매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선도하고 나섰다.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형진)는 17일 임실터미널과 임실시장 일대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시니어 클럽 참여자 500여명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 눈길을 끌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검진,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역주민에게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치매조기검진 무료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실지역 어르신에게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치매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치매파트너 교육과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치매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건전하게 키운다

남원청소년수련관 29일 개관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4년동안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남원시가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구 시청사에 건립한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이 오는 29일 개관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4년동안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지상3층, 연면적 2,648.77㎡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층은 북카페,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등이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요리교실, 체육관 등 3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이 입주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취미개발 등 건전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다

이환주 시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웃고 쉬고 놀고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사봉을 출발해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자연생, 역사, 유적 등 감상했다.

전국 도보여행객 '역시 옥정호' 유혹

천년전북천리길 걷기 문화행사 성료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가 걷히고, 하얀 물안개가 피어오른 옥정호 마실길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도보여행객이 몰려들었다.

"역시 옥정호"라는 탄성이 쏟아지며, 길다랗게 줄을 이은 도보여행객들로 옥정호 둘레길은 또 하나의 장관을 선사했다.

관광객들로 둘러싼 옥정호와 호수 가운데 붕어섬은 '찰칵찰칵' 찍히는 셔터 소리에 비그친 가을날의 모델이라도 되는 양 그 아름다움을 실컷 뽐냈다.

행사 시작과 동시에 지역민은 물론 도보여행 동호회 회원 등 700여명이 참여해 '같은 길'을 걸었다.

이들은 전 날 밤부터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아름다운 물안개로 둘러싸인 옥정호 마실길을 마음껏 향유했다.

국사봉을 출발해 요산공원, 입석리, 어리동을 거쳐 국사봉으로 돌아오는 6.5㎞구간으로,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자연생태와 역사, 유적 등을 감상했다.

임실치즈와 막걸리 등 다양한 임실 먹거리 체험행사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부산에서 찾은 도보여행객 김모(44)씨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어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물안개낀 아름다운 옥정호의 정취로 힐링하고 임실을 폭넓게 알고 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도 많이들 찾아오셔서 천만송이 국화꽃의 향연 속에 치즈 등 지역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남원시가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9건을 발굴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 남공회 등과 전략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달궁 노후수도시설 개량 4억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 2억원, 덕과 비촌창촌 세천정비 3억원,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 3억원 등 총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레 따라 겨울철 동결로 급수가 어려운 달궁마을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 간이상수관로를 전면 개량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연결하는 테마꽃길 조성사업으로 시립 김병종미술관, 덕음산 오감만족 숲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사계절 꽃길을 조성, 도심속 힐링 공간조성과 관광단지화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에서는 집중 호우시 법면 유실과 범람이 의한 농경지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보절면, 덕과 비촌 창촌 세천 정비사업과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복지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더 협력하고 더 많은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행복홀씨 입양 모범 지자체 선정

순창군이 행복홀씨입양사업의 대표 자치단체로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내가 사는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주제 아래 지역 민간단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등 일정구간의 환경을 새롭게 가꿔가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234개 자치단체 중 전국 2위의 성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올해는 46개 단체에서 사업비 4천6백만원을 들여 관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양시 마을건강지도자 등 38명이 순창군을 방문,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내용과 클린순창 만들기 사업에 대해 업무연찬을 하고, 금과면 아미마을을 견학했다.

한편, 순창군은 2013년부터 클린순창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 매년 폐비닐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수거실적을 평가해 우수 면에 시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클린순창 핵심리더 집합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꿔나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독대마당 등 환경정비 마쳐

순창군이 추석 귀성객 맞이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군은 순창군의 대표관문인 독대마당과 일품공원의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귀성객에게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깨끗한 고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독대마당과 일품공원은 순창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18,212㎡ 면적에 바닥분수, 소공연장, 산책로, 주차장, 벽천, 장독대, 브랜드 슬로건 LED간판 등을 2017년에 조성했다.

특히, 일품공원의 분수대는 여름철 아이들의 물놀이 시설로 각광받아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 피서지로도 인기를 받은 곳이다. 더불어 소공연장에서는 10월까지 매월 격주로 문화공연을 펼쳐, 가족단위로 찾는 군민들에게 좋은 나들이 장소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 가족단위로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